



‘물수제비 샷’ 마스터스 개막을 이틀 앞둔 9일(한국시간) 타이거우즈(오른쪽)와 더스틴 존슨, 중국 15세 소년 골퍼 관톈랑(왼쪽)이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 골프장 16번홀에서 연습라운드 도중 ‘물수제비 뜨기’ 묘기 샷을 선보이고 있다.

국가대표 병역혜택 규정 강화…체육회 반발

아시안게임 금·올림픽 동 → 대회별 성적 누적점수로 … “선수 사기저하 우려”

대한체육회(KOC)가 병무청이 추진하는 운동선수들의 병역혜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체육회는 9일 “현행 아시안게임 1위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병무청이 대회별 성적 누적점수로 바꾸는 것은 선수들에게 심각한 사기저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한 번의 입장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운동선수들의 병역혜택 규정을 크게 강화할 뜻을 밝혔다.

특히 병무청은 국위선양의 기여실

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혜택을 받는 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체육요원 등으로 복무할 때는 청소년 교육을 포함한 성능기부 복무를 일정시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체육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상위 성적을 내기 위해선 초등학교부터 최소 10년 이상 장기 훈련에 전념해도 극소수만 입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는 총 186명으로 연평균 18.6명이다. 이는

고등학교 이상 등록선수의 0.2%에 불과하다.

체육회는 또 “올림픽에서 입상해 체육요원에 편입돼 해당선수는 일반 공익요원 이상의 의무병역 기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그동안 스포츠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든 고통을 이겨내며 국위를 선양하는 각종 순기능을 고려해 국방부와 병무청의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우즈·매킬로이 대결? … 최경주 “나도 있다”



마스터스 내일 개막 골프 명인 총출동

최경주 등 코리언 브라더스 4명 출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그 자리를 노리는 ‘신성’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골프명인들이 총출동하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서 숨명의 대결을 벌인다.

매년 4개의 메이저 골프대회가 열리지만 그중에서도 매년 4월 둘째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마스터스는 선수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다.

올해는 11일(현지시간) 개막해 나흘간 열전이 펼쳐진다. 이를간 1, 2라운드를 치른 뒤 공동 60위 이내와 2라운드 선두와 10타차 이내의 선수들을 물려온다. 3라운드는 이어간다. 4대 메이저대회 중 브리티시 오픈과 US오픈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지만, 이를 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선수를 거쳐 올라온 140~150명의 선수들이 북적거린다.

반면 마스터스는 엄격한 출전자격 조건을 충족시킨 100명内外의 선수들만 주려 우승자를 가린다는 점에서 다른 메이저대회와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올해 마스터스 출전 선수는 94명이다. 이 때문에 골프선수들은 마스터스 우승자에게 주는 ‘그린 재킷’

을 입는 것을 대단한 영예로 여긴다. 77회를 맞이하는 올해 마스터스는 골프황제의 자리를 지키려는 ‘절대강자’ 우즈와 24세의 어린 나이에 도전장을 던진 매킬로이의 대결에 초점을 맞춰졌다.

10년 넘게 왕좌를 지킨 우즈는 2008년 US오픈에서 정상에 오른뒤 메이저대회 우승수가 14승에 머물렀다.

마스터스에서는 4차례 우승했지만 2005년을 끝으로 그린 재킷을 입어보

지 못했다. 마스터스 최다 우승자는 6차례 우승한 째 니클라우스(미국)다.

우즈는 아널드 퍼머(미국)와 함께 역대 마스터스 우승 순위에서 공동 2위에 올라있다. 2009년 말부터 터져나온

성추문과 이어진 부상때문에 끊없이

주목했던 우즈는 지난해 PGA 투어에서 3승, 올해는 시즌 초반에 벌써 3승을 올려 황제의 면모를 되찾았다.

특히 이번 시즌 우즈가 보여준 퍼트 실력은 전성기의 기량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즈는

거리별 퍼트 지수에서 1,476을 기록,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 스피드가 빨라 ‘유리 그린’이라는 애칭이 붙은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그의 퍼트는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



마스터스 출전에 앞서 텍사스 오픈에서 샷 감각을 끌어올린 최경주. /연합뉴스

적이다.

왕좌에 도전하는 매킬로이는 2011년 US오픈, 2012년 PGA챔피언십까지 2개의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며 승승장구를 했지만 최근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 나이카페를 으로 교체한 허리를 앞두고 준비를 막쳤다. 2009년 우즈를 꺾고 PGA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양용은(41·KB금융그룹)도

아시아 최초의 메이저 챔피언의 자존심을 걸고 출전한다.

재미교포 케빈 나(30·타이틀리스트)는 지난해 대회에서 공동 12위에

오르는 성적을 내 올해도 선전이 기

대된다. 재미교포 존 허(28)는 마스터스 출전이 처음이다. 지난해 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존 허가 첫 출전하는 마스터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KLPGA 투어 개막

내일부터 롯데마트 오픈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11일 롯데마트 여자오픈으로 2013 시즌을 시작한다. 올해는 지난해 열린 21개보다 4개가 늘어난 25개의 정규 대회가 선수들을 기다린다.

히든밸리 여자오픈이 없어지고 네

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4.19~21), E1 챠리티 오픈(가정·5.31~6.2), 금

호타이어 여자오픈(7.5~7), 타니 여

자오픈(8.9~11), 11월 여자오픈(스

폰서 미정·11.15~17)이 신설됐다.

전체 상금규모도 지난해 약 110억원에서 올해 최고인 약 143억원(L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존 허가 첫 출전하는 마스터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광양시청 볼링팀 남자 일반부 종합우승

대통령기 전국대회

특히 2013년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광양시청이 출수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됐고 최복음·박종우가 국가대표로, 활동준이 청소년 국가대표로 각각 선발됐다.

곡성군청 김문정은 여자일반부 개인종합 2위와 마스터즈 2위, 개인전 4인조·3인조·5인조에 출전해 총 5641 점(평균 235.04)을 기록, 남자일반부 개인종합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개인전에서 활동준·최복음이 각각 1·2위를, 2인조에서 최복음·박종우가 3위를, 3인조에서 최복음·활동준·박종우가 2위를 차지하는 등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다음카페 광주지부운영센터

*4월 11일(목)

▲광주아이티파크 4월 11일(목) 정현·화왕산·

임주제·정민경·전민경·전민경

*다음카페 광주도로운영센터

*다음카페 광주도로운영센터